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일 화요일 음 1월 19일 (11물)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7℃, 낮 최고기온은 8~12℃로 전망된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니 야외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60%	제 주	20%
60%	성 산	10%
60%	고 산	10%
60%	서귀포	10%

	해뜸 07:01 / 해짐 18:31	달뜸 21:48 / 달짐 08:56
물때	만조 00:22 / 12:45	간조 06:55 / 19:21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6/13℃
모레	흐리고 비	9/14℃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미얀마 최악 유혈사태 '피의 일요일'

최소 18명 사망·약 1000명 구금

총에 맞은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

미얀마 군경이 민주화 시위대에 무력을 사용해 쿠데타 후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미얀마 군부의 거듭된 평화시위 탄압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극적으로 증폭하면서 미얀마 정정 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주목된다.

유엔인권사무소는 28일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을 비롯한 전국에서 펼쳐진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미얀마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시위자 가운데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인권사무소 대변인은 "미얀마 시위에서 고조되는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평화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군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온라인·위성·지상파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독립 언론사 버마의민주소리(DVB)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양곤, 만달레이 등 9개 도시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19명 발생했고, 미확인 사망자도 10명 있었다며 2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양곤에서 열린 쿠데타 규탄 시위에 참여한 남성이 가슴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말했다. 사망자 중에는 교사들 시위에 참여한 여성은 경찰의 진압 작전 이후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만달레이에선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지는 등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문 영 택
(사)질토래비 이사장

마소의 길·치유의 길·해넘이 길

작년에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들불축제가 올해엔 열린다. 비대면 축제이기에 영상으로나마 코로나를 잠재우길 소원하는 비념의 문화행사와 더불어 마소와 함께 하는 목축문화의 장면도 만나길 기대한다.

들불축제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애월읍 소길리는 소가 다니던 길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제주의 명품길로 진화한 소의 길인 쉐질은, 제5소장 일대에 살았던 목자들이 무시를 몰고 다니던 길이었다. 쉐질 주변에 형성된 소길리는 '길조(吉兆)를 부른다(召)'라는 의미를 지닌 마을이다. 돌담 사이로 난 쉐질은 한 마리의 소가 지나갈 정도로 폭이 자그마한 길이다. 산방산 동녘에 위치한 월라봉에는 목장에서 키운 말들이 한 줄 지어 당캐라는 포구로 내려갔던 물질도 있다. 오래전 선인들이 마소와 더불어 오가던 길이, 이젠 행복의 길이 되고 치유의 길이 됐다.

우도는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은 데서 비롯된 이름이지만, 사람이 살기전에는 말들이 살았다. 1697년 유한명 목사가 200필의 말을 섬에 방목한 후 우도는 국유목장이 됐다. 탐라순력도 41화폭 중 하나인 우도점마는, 우도에서 기르던 말들을 점검하는 풍속도이다. 150여년이나 땅을 기름지게 했던 말들을 본도의 목장으로 보낸 1844년을 전후해 우도에서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주로 구좌와 조천 지역 선인들이 삶의 터전을 우도로 옮겼다. 그 중심에는 조천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해 한양에서 진사벼슬을 한 김석린 공이 있었다. 공은 서당을 열어 훈학에 앞장서고 이주민들이 농경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역과 세금을 덜어주는 역할에도 앞장섰다. 183만여 평으로 이루어진 우도의 땅은 대개 1000여 평 내외로 분할돼 있다. 그만큼 이주민들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조성된 아기자기한 밭담길이 있기에 오늘도 사람들은 우도 도처의 길에서 치유의 시간을 갖는가 보다.

70을 바라보는 나는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을 지닌 노마지지(老馬之智)라는 4자성어를 곧잘 떠올린다. 그러고보니 말띠인 나는 꽤나 말과 연이 있나 보다. 옛날 제나라 환공이 고죽국을 정벌하고 돌아오다 눈이 엄청 쌓여 길을 잃었다. 그때 재상인 관중이 늙은 말은 달리는 힘은 모자라지만 집으로 찾아가는 능력은 출중하니, 늙은 말의 지혜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해 노마지지 라는 말이 전해지게 됐다 한다.

세종대왕을 보좌하며 18년간 영의정을 지낸 황희정승은, 88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포용력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은 상생의 정치를 추구했다. 아첨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노련하고 숙련된 경륜을 보여줬다. 황희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덕이 깊어지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을 게다.

마소가 다녔던 길에 들어서면 마음이 안온해진다. 그리고 길 너머를 바라보며 인생의 해너미를 그려보기도 한다. 나이 먹어감에 따라 노후한 존재로 비치는 것보다 노숙한 존재로 비쳐지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일 게다. 헤아려보면 인간의 죽음도 성숙함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던가. 노화의 과정은 심신이 쇠약해지는 과정이라기보다 자아의 완성을 향한 느릿느릿한 여정이라 여겨본다. 그러기에 노화란 죽음으로 가는 생애장도(壯途)에서 멋과 맛도 생겨가는 철 들어감이 아닐까 한다.

열린마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김 형 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800~900여명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로 실직자가 증가해 2020년 한해만 3300여명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법률에 따라 총 7가지의 급여가 제공돼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반면 소득 초과 등의 사유로 선정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정부 정책 사업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을 소개하겠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의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중 본인이 조건에 부합시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자격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 통합조사팀에서 재산·소득 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며 공단에선 신청인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7만5000여명에 달하며 제주시 경우 3300여명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처럼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 코로나19' 1년을 되돌아 보며

한 봉 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코로나19 제주 누적확진자는 2월 28일 기준 570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81명(14%), 12월 340명(61%), 올해 1~2월 140명(25.0%) 등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모든 것이 비대면 생활화로 바뀌는 등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 경·조사인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는 음식물 제공이 금지되고 관공서, 위생업소 등을 출입할 때는 제주안심코드 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출입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촌까지, 올해 설명절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친척 어른을 뵙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단계+α로 격상했다 하향했다를 반복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 속에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식당, 유흥시설 등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 동안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선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 사항을 9000여 위생업소에 안내하고 비상대책반도 구성, 주·야간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가격 인하 음식점 온라인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위생업소와 위생단체에는 방역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단계별 접종이 이뤄지고 치료제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기구(EMA)에 긴급 사용 신청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를 1년 겪으며 경험한 결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거리두기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봄이 살며시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다. 이제 기본 방역수칙만 철저히 지키면 코로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흑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 물질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